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2월 둘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세배는?

Worship - 찬양

☞ 그 사랑 얼마나, 십자가 그 사랑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아버지의 품으로 (누가복음 15:11-32)

은혜란 아무것도 한 것 없이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가정 외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아들과 종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한 아들이고, 인생과 돈을 허비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돌이키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15:20)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과 그를 용서하러 대접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눅15:29)

그렇게 오랫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엔 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살지만 함부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8:14-1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입니까?

내 힘으로만 사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렘31:3)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러운 나, 냄새 나는 나를 용납하십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생의 진짜 목적은 매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처럼 분노와 비난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잔치에 들어가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12:15)

매일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잔치가 시작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너그러워지십시오. 잔치는 열려 있어도 내가 분노하고 교만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과 율법이 아닌 은혜로 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2. 적용

- 1) 나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 2) 다시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 여전히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소서.
2. 온라인예배 및 현장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그 사랑 얼마나

원경옥

다 표현 못해도 - 나 표현 하리라 - 다
 고백 못해도 - 나 고백 하리라 - 다 알 수 없어도 - 나
 알아 가리라 - 다 달지 못해도 - 나 - 달 아 가리라
 - 다 달 아 가리라 - 그사
 랑 얼마나 - 아름 다운지 - 그사 랑 얼마나 - 날
 부요케 아는지 - 그사 랑 얼마나 - 크고 놀라운지를 - 그사
 랑 얼마나 - 나를 감격하게 아 는 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Words & Music by Stephen Hah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 나 서
 지나간 일들 을 기억하지 않 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 혜
 이전에 행한 모 든 일 생각지 않 으 리
 돌같은 내마 음 어루만- 지 사
 사막에 강물 과 길을 내시 는 주
 다시 일 으켜 세 우신 주 를 사랑합니 다
 내안에 새일 행 하실 주 만 바라보리 라
 주 나를 보호 하 시고 날 - 불 드시
 주 너를 보호 하 시고 날 - 불 드시
 리 - 나는 보 - 배 롭고 존 귀 한
 리 - 너는 보 - 배 롭고 존 귀 한
 주님의자 너 라 주 - 의자녀 라